東亞日報
十二月三十日(土) 夕刊
發行所 東亞日報社
電話 光化門 一九〇〇

社說

三三年政局의 特質

福建要人暗殺策을 藍衣社暗躍計劃

一百六十餘名이 福建에 潛入

福建政客은 不安狀態

南臺不穩襲 保障을 要求

福州領事團國府에

黃、何兩氏가 北中政務會開催

張學良의 歸國을 앞두고 各將領結束을 圖謀

顏惠慶氏 明春一月歸國

一九三三年 外交의 經過

非常時의 廣田外交策

滿洲國發達에 全努力을 傾注

齋藤首相의 時局談

◇蘇聯의 四巨頭(右로부터 …… 카스노비치, 올셰니키세, 스탈린)

一切의 攻擊武器 全廢를 루氏提案

故월손誕生記念祭席上에서 平和와 軍縮을 力說

共產軍一部 南昌附近襲來

南市에 戒嚴令發布

루마니아首相 狙擊되어 即死

犯人은 反猶太學生

蘇中央執行會

通商條約改訂次로 루氏에 獨裁權附與

明年議會에 新案提出

對外爲替市況

(十二月三十日)

▲東京爲替
對米 賣 三十弗八分五
對米 買 三十弗八分七
對英 賣 一志二片八分三
對英買 一志二片二分一

▲大阪爲替
對米 賣 三十弗八分五
對米 買 三十弗八分七
對英 賣 一志二片八分三
對英 買 一志二片二分一

米日爲替保合

消息

▲下樂善氏(本社記者) ……十七番地九號에서 令三十日 ……

タイリク鉛筆

橫說竪說

東亞日報橋北洞購讀請求所
東亞日報貫鐵洞購讀請求所

日本一의 グリコ

グリコ에서 國旗메달
運動은 분께는 二重添物
우리들의 國旗
우리들의 國旗를 가슴에 붙이고 日本國民으로서의 힘을 分明히 마음에 새기옵시다!

眞光
「基督教雜誌」 月刊發行
一九三四年一月부터
主筆 劉期泰
發行所 眞光社

아이생활 新年特輯號
百圓懸賞

조선서 제일 튼튼한 광목 태극성광목

癩病根治 大明堂

民刑事親切取扱 金用茂法律事務所

朝鮮劇場
눈물에 지는 꽃
復活(카츄샤)

優美館
暗黑街의 顏役
海賊

ClibPDF - www.fastio.com

全朝鮮의醫師는 萬人에一名比率

農漁村에는分布稀薄으로 廿萬名에一名도未及

조선의 의사통계에 의하면 조선 전 인구에 비하야 결국 一만명에 대하야 의사 한명의 비률이 되지못하는 현상이다. 즉 총독부 통계의와 개업의와 기타의 의사를 합쳐서 一천九백九十八인이 전 인구 一만인에 대하야 한사람의 비률인데 이의사들도 대부분이 경성(京城) 평양(平壤)등 사중요도시에 집중되고 산어촌에는 극히 그분포상태가 희박하야 二十만인에 한사람이 되지 못하는 곳도 적지 않다. 이와 같은 벽지에는 의사뿐만이 아니오 의생(醫生)도 도시 집중으로 말미암아 극히 희소하야 병에 걸리면 의약의 은택을 입지 못하고 그대로 자연에 맡기어 버리는 참상을 연출하고 있다.

病院 百卅三個所 醫師 千九百十八名

금년六월말에 조사한 전조선의 의료기관은 병원(病院)이 관립(官立)四, 공립(公立)四十五, 사립八十四로 합계 一백三十三개소이다.

이사람 병원중 조선사람의 경영하는 기관은 단지 十개소이오 일본사람의 경영은 五十一개소, 외국인이 경영하는기관이 二十三개소로서 의사의 통계를 보면 관공의가 四百八十 [illegible]이오 개업의가 一천五백七인 기타가 八인으로 그총계가 一천九百十八인인데 그중 조선사람이 一천 [illegible] 일본사람이 九백 [illegible] 외국사람이 三十一인이라 한다.

그다음 의생(醫生)의수효는 四 [illegible]이오 한지의업자(限地醫業者)가 二백七十七인이오 치과(齒科)의사중 [illegible]가 三十一인 개업의가 五백六十一인가 [illegible]로 치과의사의 총계가 五백九十五인인데 이중에는 조선사람이 一백五十五인 일본사람이 四백三十七인 외국사람이 三인, 이외에 입치영업자 一백八十五인이라한다.

이외에 산파(産婆) 一천九백六인, 한지산파三十一인, 간호부 一천九백八十인, 종두시술생 一천一백二十七인, 안마(按摩)업자七백三十三인, 유도정복업자四十八인, 침술업자八백七十一인, 염술업자 六백十七인등으로 이총수의 업자가 七천四백九十三인에 달한다.

集金이안돼 飮毒한少年

주소불명 시내광희정(光熙町)에 두고 잇는 황일봉(黃一奉)(十七)은 일마아니되는 자본으로목공은 세광업을 경영하고 잇든바 廿九일오후六시四十분경에 자기집으로 돌아가자 즉시피를 토하고졸도하는 것을 모친이발견하고 응급수당을 하야 그부근소전(小田)병원에 입원케하엿으나 생명이 위독하다.

그런데 원인은 그동안 실패로 알른 사방으로돌아다녀도 수금을 하지도 못하고 외상값을 알고 염세증이 생겨서 장충단공원에서 공업용초산을 먹은것으로 판명되엇다.

長銃携帶한反滿軍 安東에서五名拉去

十一세된 아이와어른을 잡어가 人心은極度로不安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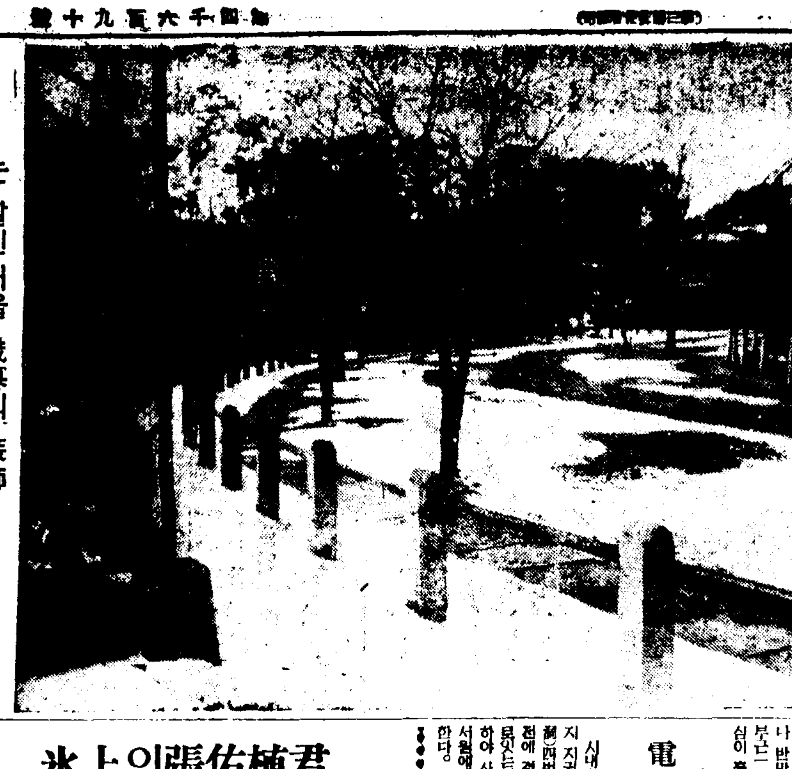
【안동현】 매일과 같이 연발하는 강도사건으로 불정소연한 안동현(安東縣)에 또 반만군(反滿軍)이 출현하야 인질(人質) 五명을 납거한 사건이 일어낫다.

二十八일 오전二시반경 안동현 七도구리 제三구에는 장총과 권총을 휴대한 十一명의 반만군이 출현하야 동구 경제二五호 [illegible]가(商家)마차점에 침입 주인 [illegible](二十)과 그의 아들 보재(寶才)(十一)를 또 부근의 마차점 二개소에서 三명을 오지(奧地)방면으로 납거하엿다.

이 급보를 접하고 즉시 안동경찰서원이 현장에 이르럿을 때에는 이미 반만군은 도망한후 이엇는데 제三구에는 저간에도 二차나 반만군이 습래하엿던 곳으로 부근 일대는 물론 안동시내도 인심이 흉흉하다.

電車票窃取 二名용산서에

시내수창동(需昌洞) 一一一번지 지귀성(池貴成) 체부동(體府洞)西번지 이흥갑(李興甲) 양명은 전에 경성전기회사전차과 차장으로 잇든것을 기화로 승차권을 절취하야 사용하다가 二十九일 용산서원에게 발각되어 인치되엇다고 한다.



눈 깔린 서울 歲暮의 裝飾

新記錄的檢擧의西門署 今年中에三千餘名

送局한人員도四百名을突破

【思想事件을 筆頭로 獵奇的斷頭殺人】 大事件等千餘件發生

남지 사흘도 못된 아이의 머리가 그림화산장 주택지에 내동댕이 치러젓든일—지금으로부터 생각해도 끔직한일로 그천의 경관이 일로인해 움즈기고 二十三일이나 빨친 검거의 선풍은 장님으로 짐생이에게 무당에게로 흉뭇이 뛰다가 드디어 해부등으로 뒤범벅을 치다가 엽장사로 결말을 짓고 말든것이 三三년 경성범죄검거사를 꾸미엇든것이 몃번의 신문호외와 한가지로 기록을 짓고말엇다. 송고하지 얼마도못되어 박룡장사 여자가 한강가에서 피살되어서 두번피해자의 인이 잇다가 한강에 떠오른 어린아이 시체에서 눈이 빠어케 뮈진것은 룡사서원의 활동을 뒤에두고 애쓰지않고 범인이 검거되어 일이 끝낫다하고 말뚱한눈물 바작이고 손을 내쉬이든중에 누가뭇햇으라 중국인의 피살사건이 일어낫다. 참외 따미는시절에 경관은 몃사람을 검거하엿적에 범인이 조선사람이 아니가하는 의심아래 얼마나 많은 거짓범인이 유치장 신세를 젓든가? 답부사건에 서대문경찰서 [illegible] 강제로 출입당한 그모든 남녀노유가 몃번이나 눈물박아지를 흘리고 말엇든가?

×

이렇게 무릅어저 경성시내를 뛰떠들던 일이잇엇든 속에는 또 지지않은 절도 도박 횡령 사기등 적도 수로는 늘엇다. 그것이 얼마나 되엇든가 총발생용사사건 범행건수가 천二백六十九건인데 검거건수가 二천一백四十二건의 다수에 달하니 발생보다 검거가 더많엇다는것이 동서 사법주임의 말이 [illegible] 이야기이다. 그렇고 이것 거사건의 뒤에 숨은 피검자는 얼마나되나 유치장(留置狀)을 발송하야 신체를 구속한것이 五백四十九명에 검사국에 보낸것이 아마도 四백명을 돌파하는 모양이다. 마안에 특별법인 경찰범처벌규측위반에 해당되는 도박이나 부랑자취체등을 합하고 거기다 고등계에서 취급한 사상사건을 합하면 상당한 수자를 보일것이라한다.

廿八일로서 一년을 둘아본형사부의 활동을 서대문경찰서원들은 예년에 비하야 박생건수는 종고그대신 검거건수가 늘엇다하며 신수중에 절도가 대부분을 점령하는 편계로 아마도 총수의 三분지一은되리라한다.

成川에覆面强盜 忿풀이로放火

돈없다고하며 소리를 지른까닭 粟二百三十束全燒

【평양】 二十九일밤十一시경 성천군 영천면(成川郡靈泉面) 박치주(朴致柱)씨집에 복면강도 一명이 침입, 현금을 강탈치못한 분풀이로 방화도주한 사건이 잇어 소관경찰은 범인엄탐중이다.

범인은 밤중을 기화로 침입하야 주인의 아들 [illegible]파 그의처 김화실(金化實)을 몽둥이로 위협하면서 돈을내라고 강요하엿으나 금이없다 하며 소리를 지른것이 분풀이로 달아나면서 미리준비햇든 성냥에 불을 다려 마당에 쌓은조(粟)집에 던지고 달아낫는데 그로인하야 조 二백삼十속(束)을 전소당하고 가옥은 무사하엿으나 소관경찰은 때가연말이라 더욱 피해가 생길가 염려하야 크게수사중이라한다.

寡婦집强盜 ◇江東署에서逮捕

【평양】 지난 十五일 새벽 강동군(江東郡) 파부 배운엽(裵雲葉)의 집에 침입하야 저금통장을 강탈해간 범인은 二十六일체포되엇다. 그는 강동서에서 수사결과 동면 용흥리(龍興里) 이선규(李善奎)이엇는데 체포하야 여죄를엄중취조하야 계속 취조중이라한다.

年賀郵便決算 ◇四百九十萬七千通◇

연하우편특별취급은 二十九일까지에 끝낫는바 실로 금번은 연하장의총수에 잇어서 작년보다 증가된 수엿다. 시내 각 우편국에서 취급한 연하장의 총수는 四백九十만七천통이며 도착총수는 二백五十八만二천六백二 [illegible] 작년에비하면 [illegible] 증가로 수는 더욱 증가할 모양이며 시내 각우편국의 취급총수는 다음과같다.

▲京城郵便局 引受二、八〇一、九 [illegible]

▲光化門郵便局 引受九七一、三四〇(一割五分九厘增)到着一、五三四、四九四(二割六分九厘增)

▲西大門郵便局 引受二二一、四二七(一割五分八厘增)到着一四 [illegible] 九八(七分八厘增) 六七七(三分七厘增)

▲龍山郵便局 引受七一四、〇七 [illegible] 六二〇九(二割二厘增) 五(一割七厘增) 到着三〇九、三四〇(一割一分一厘增)

新年의宴會 啓明俱樂部

시내인사동(仁寺洞)一四五十二번지 계명구락부(啓明俱樂部)에서는 예년의 전례에 의하야 一월一일오후四시경에 제三회 신년식(新年式)을 거행한후 즉시 신년연회가 잇다는데 사회의 여흥이 잇으리라한다. 회원은 一월一일까지 출석여부를 알려주기를 바라다하며 계명소년단(啓明少年團)회원은 一일오후三시까지 동구락부에 집합하여주기를 바란다고한다.

天氣豫報

朝鮮에 現在잇다. 南鮮은雨 京仁地方은 雪, 其他는흐리고 沿岸은 北風이불고잇다. 明日은 天氣가좋아지고 춥다.

晴一時曇

昨廿九日氣溫 最高三度九 最低零下二度九 正午零度九

森永 チウインガム

十八名의暴力團이 富豪家를大擧襲擊

【대개는 청부업자들의 부하】 鍾路署에全部檢擧

세말에 비상한 경기가 엄중한 三十일 오전十一시경에 종로서 고등계에서는 폭력단의 혐의자 송전도태랑(松田島太郞)외의 十七、八명을 일거에 검속하엿다. 그들은 부내황금정(黃金町)五정목 三十번지의 三十호의 송전승년(松田勝年)(二十)등이엇다. 그들은 방금 十三만여원의 공사비로서 부외 휘경리(徽慶里)에 건축중인 대창무역주식회사(大昌貿易株式會社)의 직물공장(織物工場)의 청부업자 송전승년(松田勝年)(?)의 하청부업자들이다. 그들은 당일 떼를 지어 동업자 대창무역 회사장에 가서 동회사 백락승(白樂承)씨와 지로 달려가서 동회사 다가 다시 대창무역회사로 가서 이하 박규(朴奎)한성은행(漢城銀行)의 끌어내어 끌고가는등여러가지의 폭력행위를 감행하엿다는것이다.

이의 형세가 불온하게되어 동서고등계에서는 그들을 검속하는 동시에 피해자측의 관계자들을 소환하야 사업계와 협력하야 쌍방의 관계자들을 엄중히 취조중이라한다.

原因은請負關係

사건의 발단은 범행과 같이 十三만여원의 공사를 청부한 송전승년과 대창무역회사의 회계의 근三만원의 차이가 잇는것이다. 그는 청부업자측에서는 그동안에 공사한 공정(工程)으로보아 七만여원을 받고도 아직二만여원을 받어야한다고하나 대창무역 회사측에서는 지금까지의 된공사의 공정으로 六만八천여원밖에 되지못하는데 대하야 회사에서 지불한것은 七만三천여원을 지불하야 오히려 三천여원의 지불초과가 되엇다는것이다.

그리하야 쌍방의 주장이 달라 오래전부터 분규를 거듭하야 그동안 동대문서의 조정까지 잇엇다. 그러나 그들은 폭력행위에 직접 [illegible] 지난十一월에는 청부 [illegible] 대창무역회사의 [illegible] 백락승(白樂承)의 [illegible] 까지 잇엇다.

二重過歲廢止 家庭婦人이實行

가정부인협회(家庭婦人協會)에서는 적십부인협회(?)와 공동으로 二중과세의 폐단을 철폐키위하야 오는一월二일 오후二시 래화여자관(來和女子館)에서 간담회 회원이 모이어 신년축하회를 개최하고 음력과세를 폐지키로하엿다 한다. 회원되는 이는 미처 알지못하엿드라도 기어히 참석하야 이의의잇는 축하에 빠지지 않이케 바란다 한다.

京城寫眞學校 講習院으로認可

一月十六日부터開學

조선에 최초로 사진승학수업(?)한 중앙기독교 청년회학교 사진과는 이방면 교양기관인 사진학교로 되엇드니 비관계로 부득이폐지하기로 되엇는바 그후로 조선사진계에 오직최고의 역사를가진 경성사진사협회(京城寫眞師協會), 경성사진연구회(京城寫眞硏究會), 경성사구회의 三단체가연합하야 중앙교에 인가수속중이든바 二十九일에 인가되어 명춘一월十六일부터 개교하기로되엇다.

조직은 본과, 속성과, 수의과, 연구과등이며 교장은 [illegible] 강사는 금광(金光)사진관주 [illegible] 비롯하야 [illegible] 이다. 원서는 一월六일부터 접수한다고 하며 임시사무소는 수송동(壽松洞)七六八번지에 두엇다.

氷上의張佑植君 千五百과五千米入賞

【電通日光電話】 中等學校氷上大會의 第三日은 三十日午前七時半부터 擧行, 前日과같이 薄曇無風으로 氣溫은 零下一度 컨디슌은 良好하엿다. 成績은 다음과같다.

【千五百米】 1泉山(八戶商)2分43秒2 ▲2中村(苫小牧工)2分43秒2 ▲3張佑植(名敎中)2分45秒3 ▲4安保(苫小牧工)2分46秒(以上中等新記錄、學生大會記錄2分42秒2를突破) ▲5金永河(京城中央高普)2分54秒3 ▲6本多(北海中)

【五千米】 1中村(苫小牧工)10分09秒6 ▲泉山(八戶商)10分10秒 ▲安保(苫小牧工)10分11秒 ▲4張佑植(名敎中)

最後一戰에 普專惜敗

上海遠征의籠球 42—33으로

【上海二十九日發中特派員電】 普成專門學校籠球團이 上海에來征하야 最後의 一戰인 對米國駐屯聯隊戰은 二十八日 午後七時부터 新中國新에서 行하바 期待되든 大激戰을 演하며 普專軍은 壯烈을 極한 奮闘를하엿으나 優勢한敵軍에게 逆襲은뜻을 이루지못하고 四十二對三十三의 接近한 스코어로 惜敗하엿다.

1933年度朝鮮籠球界回顧

—(一)—

京城 RMH生

스포—츠의 本格的實季인 秋季씨—슨에 들어와서는 벌무에 우리籠球界로서 大書特筆할만한 일이잇으니 그것은 한동안 分離狀態로되어나오든 朝鮮籠球界가 在來의 朝鮮籠球協會와 YMCA體育部가 서로無條件으로 提携하야 朝鮮籠球協會라는 單一團體의 完全한合同機關을 세운것이다.

이것이 合同되기 前에는 우리籠球界는 많은 困難을 받어왓다. 우선 그前 朝鮮籠球協會에서 招聘하려든 日本의 東京帝大軍파 京都師範軍도 日本籠球協會朝鮮支部의 干涉으로 因하야 結局엔 招聘하지못한것이다. 이와같은것을 미루어보면 우리의 指導機關이 벌서부터 合同되엇서야 할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合同으로 因하야많은힘을 한곳에 모으게됨만큼 各種運動競技가 漸次로 統制되어가는 이時期에 잇어서앞으로의 健實한活動이 絶對로必要하다.

그리고 九月中旬에YMCA主催로 第五回專門學校及 第九回中等學校全朝鮮籠球選手權大會가 東亞日報社後援下에 開催되엇든바 參加團體의 多數로 空前의 大盛況을 이루어 專門部에는 普成專門軍、中學部에는 中東學校가 遠來의 宣川信聖學校를 決勝戰에서 擊破하고 各各優勝하엿다. 이뒤를 이어 水原籠球奬勵會主催의第三回中朝鮮籠球大會에는 地域의 百合籠球團이 連二年優勝의 緻文軍을 決勝戰에서 擊破하야 優勝하엿고 또 이뒤를이어 九月廿三日에朝鮮新聞社主催中等校籠球大會에 養正軍이決勝戰에 第二高普軍을擊破하고 優勝하엿다. 또 十月八日에는 仁川籠球協會主催 第二回中朝鮮籠球大會가開催되엇든바 京城의 三角籠球團이 準決勝戰에 强豪百合軍을 擊破하고 決勝으로 올러온 前年度優勝者協實軍을 蹴退시키고 優勝하엿으며 이뒤를이어 또 朝鮮籠球協會主催의 第二回全朝鮮實業團籠球選手權大會에 百合이決勝戰에 三角을擊破하고 優勝하엿다. 또한 그다음시는 스포—츠의 綜合大會인神宮競技가 京城運動場에서 開催되엇든바 籠球에잇어서 專門部에는 普專、中等部에는 光成高普、女子部에는 第二高女等이 各各優勝하엿다. (이大會는 日本籠球協會朝鮮支部에서 主管하는關係로 同協會加入團體에만 參加資格을 與하엿음) 그런데 日本明治神宮競技에는 女子部의 第二高女、中等部의京城師範을 各各 派遣하엿다. 그러나 中學部의 優勝校가光成高普임에도 不拘하고 왜！京師를 派遣하는가！ 하는것은 筆者가 여기서 새삼스럽게 말하지아니하여도 賢明하신 讀者여러분이 이미짐작하실듯하야 여기서 말하지않는바이다.

陸聯臨時執委組織 十傑入賞者褒彰

全朝鮮陸上競技聯盟에서는 二十八日에 聯盟規約修正에 關한 審議를 行한結果 그概要를承認하고 全體를 解消하고 臨時執行委員會를 組織하엿다.

技術委員會 藤田環行(主) 外十五名 ▲計劃委員會 窪田勳(主) 外八名 ▲規約委員會 竹內一(主任)外一名 ▲庶務委員會 竹內一(主)外二名

그러고 明春二月上旬에 日本陸聯이 選定한 八年度十傑中에 朝鮮에서 入賞된이에 對한 褒彰式과 陸上競技映畵會를 開催하기로 決議하엿다.

運動界動靜

▲三角籠球團忘年會 二十九日夜에 擧行

明日프로 日曜日 JODK

晝間部

▼正午 時報今日프로그람發表 ▼午後零時五分 氣象通報 ▼零時三十分 뉴스 ▼零時五十分後 俗謠(一)時調(二)달거리(三)赤壁歌 張香蘭 李眞紅

夜間部

▼六時 童謠(一)齊唱딸기 (二)齊唱무리(三)獨唱아리새 어미새(四)獨唱인형새 마리(五)齊唱양양범버궁(七)獨唱 승근방(八)獨唱 참의꽃(十)獨唱 개나리 京城隣保講習所 피아노伴奏 朴 [illegible] ▼六時二十五分 修養講話 檢爲와宗敎 金泰治 ▼七時 뉴스、天氣豫報 ▼七時三十分 라디오드라마 [illegible]第一條 (金雲汀作)(全一幕)

時…現代 [illegible] 그담날밤 第一景 吳頌泳의집 第二景 카페—빠라질 【登場人物】 某會社員…吳頌泳 妻…鄭玉子 友人·運動聯盟幹事…崔武勇 同 音樂家…白在用 同 新興詩人…柳彦七 同·某女學校敎師…林相八 카페—빠라질女給…羅메리 其他카페—빠이女給客等 第二放送課員一同 指揮 金雲汀

▼八時二十分 레코—드音樂(流行歌) ▼八時三十分 唱劇調 (一)短歌(二)唱劇調春香傳中鄭聖歌 李翠香 鼓手 池龍九 ▼九時 獨唱과피아노獨奏

(一)피아노獨奏우—드曲 로—만스 슈만作曲 (二)獨唱 대메론曲 거므한밤 에담作曲 (三)피아노獨奏 우드曲 르리니터·차임스 대커作曲 (四)二重唱 대메론曲 하나님은나의牧者시니 스마—트作曲 (五)獨唱 올려라 요란스런鐘아 구—노作曲 ▼九時半(東)時報、氣象通報、翌日프로그람發表 ▼九時四五分 滿洲로부터中繼 北滿地方을視察하고서 滿洲國實業部農鑛 崔昌 [illegible]

第二放送

皇太子殿下御誕生奉祝記念(第三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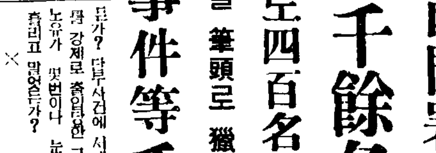
▲午後零時五十分 ラヂオヴァライティ フイナーレ三三年 ▲六時 童話劇 野菊 ▲六時二十五分 歲末講座(五)スポーツ界の回顧 ▲七時三十分(東)謠曲 翁老 ▲八時二十分(東)舞臺劇 東京中村狀右衛門宅より中繼 一幕劇歌舞伎十八番の內 勸進帳 河竹默阿彌作

大晦日特輯

▲十時(東)歌謠曲(其の一) ▲午後十時十五分(東)落語 カツレツ ▲十時三十五分(東)歌謠曲(其の二) ▲十一時五十分(東)落語大晦日 ▲十一時十分歌謠曲(其の三) ▲十一時十九分半午前零時四十分 京都除夜の鐘 京都市外東山眞如堂附近より中繼

翌日프로

▲午前十時奉祝唱歌(水下洞公立普通學校) ▲十時十五分 人事(朴榮喆) ▲正午(東)時報 今日프로그람發表 ▲午後零時五分氣象通報 ▲零時三十分뉴스 ▲零時五十分歌詞(申花仙安銀童) ▲一時二十分 레코—드音樂(映畵主題歌) ▲六時하나가二重奏(第一하모니카 金坡園 第二하모니카李炳 [illegible]) ▲六時二十五分 新春講演(一)元日의意義(崔南善) ▲七時뉴스天氣豫報 ▲七時三十分皇太子殿下御誕生奉祝記念講演(第四日)(金東煥) ▲八時 武寧之曲(大吹打)(李仲三外五人) ▲八時二十分 레코—드音樂(流行歌) ▲八時三十分(東)피아노獨奏(井上園子) ▲八時五十分 레코—드音樂(獨唱) ▲九時 唱劇調(朱蘭香 鼓手 池龍九) ▲九時三十分(東)時報 氣象通報翌日프로그람發表



世界的發明空氣銃新案特許

特許出願中 米國專賣

空氣銃

利普式 [illegible] 製作所

恩給

우리의옷감 대극성광목

高麗人蔘

◇밀林의王者 全九卷

◇桃花劇場

◇第一劇場

資本金四百萬圓 株式會社 東一銀行

京城府南大門通一丁目一番地

本店 [illegible] 支店 [illegible]

訃告

室人平昌李氏以宿患陰十一月十四日卯時別世玆以紙上告訃

葬地 富川郡吾丁面古康里先塋

一九三三年十二月三十日

夫 卞 [illegible]

子 [illegible]

護喪 梁 [illegible]

滿洲로進出하는 朝鮮人膠皮工業

事變後 農家의 需要 激增으로

◇企業的前途有望

【안동현】 만주사변(滿洲事變)이 일어난 후 남만주의 일화(日貨)배척으로 인하야 일시 폐쇄의 운명에 빠지엇섯으나 만주사변 후에는 경기가 회복되어 ……

만주사변에 고무구두의 만주 지경을 유망시하고 고무구두제조 ……

工場名	創立年月	資本	年産額(可能)	經營者
滿鮮膠皮工廠	昭和四年	二萬圓	二十萬足	金奉周, 趙東盛外五名
永信膠皮工場	昭和八年	十萬圓	二百萬足	崔昌煥, 李楓成
共盛膠皮工場	昭和四年	二萬八千圓	五十萬足	黃錫麟外七氏

그 판매모는 …… 만주의 경제가 …… 자랑하고 있다.

公判(合議)	一三件	一四名
(單獨)	八	一一
豫審	七	一三
豫審免訴	四	七
合計	三二	四五

法의裁斷업는 鐵窓過歲者

신의주에 卅一건 四十五명

其中治維法一件四名

【신의주】 …… 이를 표시하면 다음과 갓다.

自起黃개물이 터이떨어저

나무속에 잇는것을 보고

密陽守山에爆藥騷動

【수산】 지난 二十四일 오후 …… 파명되엇다 한다.

乞人을救濟

麗水敎會에서

【여수】 전남 여수읍 서정(西町)에 잇는 양조교 장로교회(長老敎會)에서는 …… 一백五十여명 ……

第二浦驛夫折脚

【겸이포】 지난 二十七일 오후 六시에 겸이포(兼二浦)역부 ……

氣候不調로 吉州에感氣

【길주】 함북 길주 지방 ……

龍仁에覆面强盜

현금十여원을 빼어갓다

警察은犯人逮捕에活動

【용인】 지난 二十八일 오전 …… 체포치 못하엿다 한다.

問題의邑長

물이사표제출

【사리원】 황해도 사리원 ……

漁業令違反

迎日四十四件

【포항】 경북 영일군 ……

歲末警戒利用코 騙金한假刑事

老人의돈四百圓詐取돈

【안동현】 세밀경계가 ……

女兒死體를 雪中에遺棄

【신의주】 二十八일 아침 ……

積雪로電線切斷

一時는通信까지杜絶

황해도 신계일대에 대설

【신계】 황해도 신계군 ……

單一共黨事件 五氏는出獄

執猶의處分밧고서

【신의주】 卅七일 신의주지방법원에서 ……

私立巽能校 普校로認可

【장성】 전남 장성군 ……

牙山兩普校 明春에는設立

期成會組織코活動中

【아산】 충남 아산군 ……

面長留任陳情

산서면민들이

【장수】 장수군 산서면 ……

領收證不保管이면 旣納稅金도再徵

◇영수증 찾으면 돈도로받아

定州郡農會의失態

【정주】 정주군농회에서는 소화 ……

三個里聯合으로 講習所設置

기본금 천五백원을 모집

◇來一日부터開講

【부천】 ……

身病悲觀自殺

동해북부선에서

【함흥】 지난 二十七일 오전 ……

加德島近海에서 漁船一隻顚覆

通航船이船員은救助

【마산】 지난 二十五일 오후 ……

耶蘇誕日에 流血의慘劇

【겸이포】 황주군 송림면 ……

警察取調五十餘日만에 重要人物七名送局

◇지난二十八일 해주경찰이

赤露革命日檄文事件

【해주】 적로혁명기념일을 ……

極貧者同情

동정미답지아

【인천】 인천소년 ……

松枝에縊死屍

【둔포】 충남 아산군 ……

共同作業으로 公會堂을建築

新溪卜岩洞與風會

【신계】 황해도 신계군 ……

◇좀 많이 쌓였으면……

烽火 (一二六)

尹白南 作

李靑田 畵

二、날치 (14)

……

新年號 新東亞 發行所 京城光化門通 新東亞社 振替京城一四三〇〇番 ◇定價三〇錢・送料二錢

赤道 (八)

玄鎭健 作 / 安夕影 畫

이마의흉터 (四)

여해의 담배 달란 말에 영애는 깜작 놀랐다. [illegible]

밝았 한껏 처마, 머리 [illegible] 까지 [illegible] 하였다。[illegible] 지나가고 밤 [illegible] 앓아 담사。

「애그 형사 머리도……」하고, 영애는 [illegible] 찾다。 감옥에서 나오는 사람이, 제일 먼저 찾는 것이 담배라 함은 누구에게 [illegible] 잘 아는 노릇이다。 여해가 거처할 방에는 미리 [illegible] 까지 해 둔 것이다。 이날 [illegible] 이야。 [illegible] 생각에만 정신을 빼앗기고 [illegible] 그에게 좀 자유나마 위안이나마 까마케 잊을 줄이야。 안방으로 건너와서 자개함인 [illegible] 담아가지고 재떨이와 성냥을 허둥어둥 주어들고, 여해에게로 오는 영애는, 어떠게 무안한지 [illegible] 맛다。 그의 얼굴은 빨개젓다。

「어지러우서요?」 영애는 그제야 말문이 열렸다。 [illegible]

「아니오……」 [illegible] 하고 여해는 웃음 [illegible]

「오나 동안에 담배도 도무지 못 피우셨구먼……」 하고, 영애의 목소리는 또다시 [illegible] 여해의 대답은 의외이엇다。

「웨 못 피우가。 이따금씩 [illegible]」

「어떠게요?」

「재수도 어법이나 [illegible] 재주가 [illegible] 지 사람이 다 [illegible] 아니요。 간수 주머니에 든 담배도 읽수 [illegible] 내고……」

「가수의 담배를 빼내다가 [illegible] 면 어떠해요」

하고, 영애는 [illegible] 해서다。

「들키면 경이지。 [illegible] 맛고 수감을 [illegible]……」

「가려운데 손이 닿는 듯 시원하다거리!」 누가 비평하는 것 같다。「어쩌면 그렇게 급하냐, 어쩌면 그렇게 참지 못하냐!」 그 소리는 비평하며 꾸짖는 것 같다。

담배합을 옮기가 무섭게 여해는 한개를 집어 든다。 빼빼한 손가락은 잘 굽혀지지 않아, 무명지와 장지 사이에 어설푸게 끼인 담배는, 가는 떨림을 [illegible] 다。 [illegi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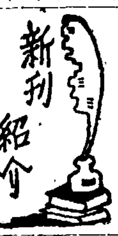
[illegible]

「그런 [illegible] 짓을 [illegible] 해요 담배가 뭐기에……」

「담배가 뭐기에?」

여해는 영애의 말을 [illegible] 이 웃는다。 이번에는 [illegible] 이마에 [illegible] 어시고 [illegible] 며 [illegible] 그에게는 우는 것보다 웃는 것이 더 [illegible] 영애의 가슴은 [illegible] 하였다。

新刊紹介



▲新東方 新年號 農民文學 [illegible] 國際情勢를 主로 하고 一九三三年을 回顧하며 一九三四年을 展望 [illegible] 其他 定價十錢 發行所 京城府 [illegible] 新東方社

▲國民法律 一月號 定價十錢 發行所 東京市芝區二本榎一ノ四七 國民法律社 振替東京一六七六六番

▲朝鮮銀行 統計月報 九月分 定價五十錢 發行所朝鮮銀行

▲專賣通報 一月號 定價二十錢 發行所 朝鮮總督府專賣局內 朝鮮專賣協會 振替京城一[illegible]番

▲新家庭 一月號 朝鮮女性人物巡禮 朝鮮史上 十大女性公薦 世界婦人運動의 新展望 [illegible] 等其他 定價二十錢 發行所 京城府光化門通一三九 新東亞社 振替京城一四五〇〇

▲農業大全 (李[illegible]著) 農業經營 作物의 栽培 園藝作物 養蠶 牧畜 等其他 定價一圓 發行所 京城府 [illegible]

▲鷄の研究 一月號 我が養鷄飼料界に起るべき今後の動向 白色レグホーン鷄の[illegible] 消化器と其作用 [illegible] 等其他 定價三十錢 發行所 東京市丸ノ內ビルヂング六九六區 鷄の研究社 振替東京七三六一番

▲調査月報 十二月號 昭和七年の死亡 國有林野施業案編成及擴張事業概況 昭和八年度[illegible] 昭和七年[illegible] 等其他 定價三十錢 發行所 朝鮮總督府 京城府 [illegible] 朝鮮印刷株式會社 振替京城四[illegible]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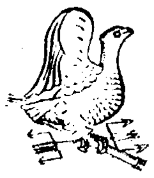
▲[illegible] 定價三十錢 發行所 京城府 [illegible]

▲朝鮮 一月號 農山漁村振興運動の全貌 滿洲人の文化と社會 [illegible] 組合に就て 等其他 定價[illegible] 發行所 朝鮮總督府 京城府 [illegible]

▲壽 (梓陽李光洙作) [illegible] 定價[illegible] 發行所 京城府光化門通一三九 新東亞社 振替京城一四五〇〇番

▲新東亞 新年號 一九三四年 世界大觀 [illegible] 定價[illegible] 社 振替京城八一〇六番

紙上病院



本생아의[illegible]

【문】 생후 [illegible]에 대하야 [illegible] 하여주시요 (京城 [illegible])

【답】 [illegible] (京城帝大 [illegible])

▲朝鮮地方行政 一月號 朝鮮の敎育 [illegible] 等其他 定價[illegible] 發行所 京城府 [illegible]

▲權民 新年號 [illegible] 發行所 [illegible]

▲新女性 一月號 [illegible] 發行所 京城府 [illegible]

新家庭

新年號

飛躍! 보라! 新年號의 大偉觀을!

新年號

값은 그대로 二十錢

發行所 京城光化門通 新東亞社 振替京城一四五〇〇番 誌代二〇錢 送料二錢

【畫報】 名犬과 名優

京城各女性團体 京城各女學校 新年新計劃

朝鮮女性人物巡禮 第一回

金美理士論 辛鳳祚

金美理士略傳 獨孤璇

世界動靜 高永煥

朝鮮史上十大女性公薦

黃義敦 車相瓚 梁世煥 梁建植 金克培 金鎭浩 玄濟明(?) 蔡弼近 李丞圭 崔奎東 金台俊

李能和 李丙燾 李允宰 權相老 金一濟 文一平 薛泰熙 李丙昇(?) 俞鎭烈 柳光烈 崔鉉培

略傳 其一

新羅의 善德女王

百濟都彌의 안해

高句麗 平岡公主

新羅의 萬明夫人

新羅嘉實妻薛氏

世界婦人運動의 新展望 …… 洪鍾民

【年頭辭】 女性指導團體의 組織

家庭趣味

李光俊(?) 金泰洽 金瑢俊 張文卿 金章煥 梁柱東 李如星

金東仁 金斗憲 金昶濟 鄭寅燮(?) 朴魯浩 金尼洙 金尙鉻

李泰俊 具永淑 李容高 李鳳麟(?) 李秉箕 咸大勳 李仁

李勳求 林孝貞 蔡弼近 玄濟明 李一 盧子泳 獨孤璇

設問公開

獨逸二大女流文學者 …… 曺喜淳

꺼지지않는香爐 …… 朴龍喆

歌謠로본中國女性 …… 丁來東

情操와法律關係 …… 金正實

庶子와私生子問題 …… 崔鉉鍾

世界締觀壽問錄 …… 一記者

女辯護士認定과朝鮮女性 …… 高一淸

올해의主人夫公訪問記

夫君은地下에 孤寂해서한이맛해 金相玉夫人訪問記

夫君은獄中에 辛酸해서한이맛해 申采浩夫人訪問記

어린이차지

【아저씨말슴】 별나라 이야기 …… 이은상

【사진노래】 우리애기 …… 琴兒生

【애기노래】 편지사람 …… 피천득

【아저씨편지】 하와이에서 …… 李春卿

【이야기】 콩쥐팥쥐 …… 田榮澤

世界的文豪와家庭生活 …… 盧子泳

朝鮮義狗傳說 火焰에싸여

西洋義狗傳說 두마리의개

男記者가되어본「핸드빽」

創作

목도리 …… 李康淑

제비그리는마음 …… 桂鎔默

結婚前後 …… 趙碧巖

詩

사눈밤그대여꿈을 …… 李孝石(?)

이방오새 …… 朴露兒

무릇 …… Y

이것이기리오 …… 金天道(?)

오는길 …… C春

니우 …… A

까날밤 …… 洪沼(?)

◎外套製法 …… 金永愛

◎毛絲編物 …… 朴漢杓

◎正月食卓 …… 方信榮

◎結髮解說 …… 吳二格

應用自在 手藝圖案集

創刊一週年紀念 幸運券添呈!!